

화학산업 수출경쟁력 “발등의 불”

삼성경제연구소, 전쟁 끝나도 경기 불투명 ... 고부가제품이 최우선

미국-이라크 전쟁이 단기간에 종결되더라도 국내경제 회복은 불투명한 가운데 석유화학제품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.

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<이라크전 발발과 업종별 동향>에 따르면, 미국-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면서 단기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국제 금융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다만, 전쟁이 조기 종결되더라도 걸프전 때와 같은 큰 폭의 경기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2002년 4/4분기부터 회복국면에 진입한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의 세계시장 공급과잉률이 2001년 11.5%에서 2003년 8.0%로 줄어드는 등 공급과잉이 다소 완화되면서 주요 제품가격이 상승했다. 국내 석유화학제품 가동률도 2002년 10월 79.5% 수준에서 2003년 1월 91.0%로 증가했다.

반면, 지속된 불황으로 생산설비 신증설은 감소하고 수요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2002년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입이 전년대비 15% 증가하는 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2002년 초부터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상승했으며, 2002년 말에는 고유가와 주요 공장의 사고여파로 제품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.

그러나 미국-이라크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면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전후 복구사업과 중국 수요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, 채산성은 악화되고 수출경쟁력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.

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PE, PP, PVC, PS 등 범용제품에 대한 중국, 중동 등 후발국의 저가공세가 강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어 중국 합성수지 시장에서의 한국산 점유율은 1998년 26.2%에서 2002년 16.9%로까지 낮아졌다. 이에 따라 채산성을 나타내는 수출단가지수도 경쟁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.

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·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.

PVC 등 범용 플라스틱에 비해 가격이 2배 정도 비싼 ABS에서는 LG화학이 세계1-2위를 다투고 있고, 제일모직이 난연 ABS 기술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국내 화학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길은 고기술·고품질 제품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.

또 경제전반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확고한 정책의지를 밝힘으로써 불안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기업들은 본사와 국내외 사업장 간의 전쟁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실시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, 전쟁을 계기로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정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4/21>

석유화학제품의 수출단가지수 비교

